

野, '2+5 무지개선대위' 띄운다

새정치, 지방선거 선대위 구성...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외

문재인·손학규·정세균·정동영·김두관 등 대선주자급 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함께 당내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2+5' 형태의 '드림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모든 계파를 아우르는 '무지개 선대위' 진용을 구축해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으로, 신당 창당 후 '화학적 결합' 여부를 가능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대위 구성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안 '투톱'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문재인·손학규·정세균·정동영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대선주자 출신 인사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2+5'

의 7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다.

당 관계자는 "7인의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역할분담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며 지지층 결집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보고안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상임위원장을 선대위 고문단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선대위 산하 각 조직에는 안 대표 측 인사들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의 공식 명칭은 '새정치승리위원회' 등 2~3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김 대표는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고려사항 없이 선대위를 구성해달라"며 탈(脫)계파 및 당내 단합을 강조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無)공천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이르면 금주 안으로 선대위 구성을 완료,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안 대표와 '불안한 동거'를 해온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의 선대위원장 수락 여부가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와 관련,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게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답변을 유보한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손학규 상임고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연 협동조합 관련 토론회에 참석,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내 역할을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등 다른 상임위원들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문 의원이 선거 승리를 위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결의

9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역 여성 오피니언리더 대상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확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책선거 실천을 결의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가라온지

장병완,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9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1000만원을 확보해 광주 석산고 음악실과 미술실, 시청각실 등의 다목적 교실 증축 공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974년과 1984년 준공된 석산고 음악실과 미술실 등이 노후화에 재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이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남, 지방선거 4월 시행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지방선거일을 4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에서는 5월이 한창 농사일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최근 여름이 길고 더워지는 추세에 비추어 무더운 6월은 선거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지방선거일이 4월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강운태 "국비사업 추가 발굴 논리 개발을"

재선에 도전하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비사업 추가 발굴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9일 실·국에 지시했다.

강 시장은 "보다 많은 국비확보를 양해령, 동구 재건 추진단 구성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전교조 원로들 지지 받아

오종렬·정혜숙·림추삼·이효영 등 전교조 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지낸 원로들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공개 지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지도자문위원장인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휘국은 시민진영의 후보이며 청렴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4년동안 노력했다"며 "장 교육감을 통해 광주교육의 미래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김상집 "서구에 세대통합복지센터 도입"

김상집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구를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동네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여성과 어린이, 어르신 등 서구 구성원 모두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복지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양혜령, 동구 재건추진단 구성 공약 제시

양혜령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을 전담할 동구재건추진단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구청에 동구재건추진단을 신설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주민들의 행정적 어려움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귀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제도 시행"

송귀근 고흥군수 예비후보는 9일 "농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정부 차원에서는 반드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장현 "임음, 기념곡 지정 정부 결단 촉구"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정부질의에서 국론 분열을 주장하며 기념곡 지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총리의 역사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형일, 공명·정책선거 협약 제안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교육감선거 후보들이 모여 공명선거와 정책선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양 예비후보는 "어느 선거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광주교육감선거가 입지자의 난립으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체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공명·정책선거를 실천하자는 협약을 맺자"고 밝혔다.



신현구 "염주·마복동 잇는 스포츠라인 구축"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U대회를 앞두고 서구 일대에 사회적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경주장이 들어서 국내외 다양한 경기 유치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염주동, 마복동을 잇는 스포츠 라인을 구축하면 명실공히 서구가 세계적인 스포츠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준 "화순 발전 다섯가지 약속"

전형준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9일 "화순을 꿈과 이상이 강물처럼 흐르는 군으로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약속'을 군민들에게 내놓았다. 전 예비후보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해왔던 화두와 13개 읍면의 솔한 유권자들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사명감을 묶어낸 결과물"이라며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지방선거 매니페스트 토론회 개최

재선에 도전하는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장공약 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과 6.4지방선거 매니페스트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오섭시의원은 "시장공약 이행 평가는 매니페스트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시장공약관리를 내부규정으로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박정욱·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금천면 배과수원(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8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론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년6억 收益 모델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픈,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물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